

환자와 동고동락한 2년

글 정영자(마산시보건소 결핵실)

내가 결핵관리 사업을 담당한 지도 2년이 되어간다. 결핵실에서 일하기 전에는 결핵이라는 병에 대해 크게 심각성을 느끼지 않았었는데, 다양한 연령층의 환자를 접해 보면서 그리 쉽게 여길 병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느꼈던 점과 개선해야할 방향에 대해 몇 가지 이야기하려 한다.

결핵환자 약 부작용 고통 심해

첫 번째는 결핵약에 따른 부작용 증세이다. 사람마다 결핵 증세도 다르고 부작용의 증세도 다르지만, 결핵 치료를 받는 절반 이상의 환자들은 결핵약의 부작용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곤 한다.

많은 환자들이 있었지만 치료를 받던 환자들 중 유독 부작용이 심했던 환자 한 분을 지켜보았는데, 나이는 25세 신장은 165cm에 체중은 40kg이 겨우 넘는 정도의 왜소한 체격의 여성이었다. 이 환자의 경우 처음 결핵 확진을 받고 2주 동안은 약에 대한 어떤 부작용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데 2주 후부터는 매일 보건소로 전화를 걸어 약을 복용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호소했다. 속이 메스꺼워 음식을 먹기가 어렵고, 간신히 음식을 먹고 나면 바로 토해버려 아무것도 먹을 수 없다고 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속은 괜찮아졌는데, 여기저기 피부에 발진 증세가 심하게 나타난다는 것이었다.

결핵약을 먹으면 기운이 빠지고 식욕이 없어지는 것은 약을 먹음으로써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런데 이 환자의 경우 일주일간은 음식을 먹으면 토해버려서 힘들어했고, 그 후 일주일엔 피



부발진 때문에 고통스러워했다. 괜찮아지는가 싶더니 두드러기 증상까지 보였다. 부작용이 일어날 때는 피부약을 처방해서 치료를 받도록 하는데 이 환자의 경우 피부약을 먹고 난 1시간 정도는 차도가 있다가 다시 똑같은 증세가 반복되었다.

환자도 고통스러워했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나도 너무 마음이 아팠다. 그러던 중에 우연히 결핵병원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신 전문의 과장님이 찾아오셔서 문의를 드려보았더니 아침에 공복에 먹던 결핵약을 잠이 들기 전에 먹어볼 것을 권해주셨다. 그 얘기를 듣고 그 환자에게 바로 전화하여 밤에 약을 먹으라고 했고, 다행스럽게도 심한 부작용의 증세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다.

그 약을 먹고 난 30분 뒤부터 약간의 메스꺼움과 두통이 2시간 정도 계속되었고, 그 다음날도 똑같이 밤에 약을 복용했는데, 그 전날과 같은 증상이 1시간 정도 나타나다 괜찮아졌다고 했다. 셋째 날에는 메스꺼움과 두통이 다 사라졌다고 했다. 아침부터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해서는 다 나은 것 같다고 말하는데 마치 내 일인 것마냥 기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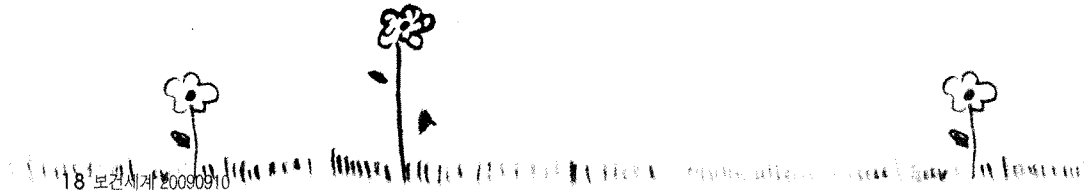
계속 밤에 먹으면 편하기는 하겠지만 혹시 완치가 어려울까 싶어 다시 아침으로 돌려서 먹기를 권했다. 그런 뒤로는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았고, 이 환자는 지금 열심히 일을 하면서 결핵약을 먹기 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생활하고 있다.

이 환자를 보면서 결핵약을 복용함으로써 나타나는 부작용을 극복하기까지의 기간이 많이 힘들겠지만, 부작용을 극복하고 약에 적응이 되면 그 이후에는 약만 꾸준히 잘 챙겨 먹으면 완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물론 결핵약을 먹는 동안은 한 끼도 거르지 않고 식사를 해야 하고 영양식을 많이 섭취하는 게 좋다. 결핵약을 먹고 한 달 정도는 기운이 없어서 힘들지만, 그 후로는 가벼운 운동도 병행해야만 결핵이라는 병을 이겨낼 수 있다.

물론 부작용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환자들도 있다. 그렇지만 위에서 예를 들었던 환자처럼 부작용이 심한 사람의 경우에는 치료과정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은 약이 빠른 시일 내에 개발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결핵에 대한 인식 부족이 치료의 걸림돌

결핵관리 업무를 하면서 놀랐던 점은 결핵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다. 결핵이라는 병이 주위에서 많이 발병되는 병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다지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다. 만약 지금 길을 지나



가는 사람에게 “결핵이라는 병을 제대로 알고 계세요?” 라고 물으면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할까? “요즘 의료기술이 워낙 발달해서 다 완치되지 않느냐”고 대답하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이다. 이렇게 결핵이 대수롭지 않은 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결핵관리 사업에 대해 보건소 자체적으로도 많은 홍보를 하고 있지만 이 정도로는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정부에서도 마스크나 기타 매체들을 통해 결핵 예방에 대한 홍보를 더 많이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본다.

결핵 환자 수로만 본다면 OECD 회원국 중에서 1위라고 하니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 부끄러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 스스로 조금씩 변화가는 노력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짚어본다면, 청소년의 결핵환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PC방과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청소년들이 흡연을 함으로써 호흡기를 비롯한 폐와 관련된 기관지 질병 발생을 더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다.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해서 PC방과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는 법이 빨리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현재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는 정기검진을 1년 정도 앞당겨서 중학교 3학년 때 하면 어떨까 싶다. 그 이유는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중학교 때보다 상대적으로 학교에 있는 시간도 늘어나게 되고 수업량도 늘어나게 되어 체력적인 소모가 더 심한데, 그럴 경우 면역력이 떨어져 결핵에 걸릴 확률이 더 높아지기 때문이다.

사실 결핵관리 사업을 하면서 제일 많이 접하게 되는 환자가 청소년이다. 막연히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집단생활을 하다 보니 결핵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말하는 것은 어른으로서 너무 무책임한 일이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우리 어른들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특히 기숙사와 같은 곳은 각별히 환경 정리에 신경을 써야 하고, 정수기는 자주 필터를 갈아서 청결함을 유지시켜야 한다. 이처럼 사소한 부분부터 신경을 써서 우리 아이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질병의 위협에서 벗어나 학교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더 노력해야 하겠다.

결핵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힘든 점도 많았지만, 완치되어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오는 환자들을 보면서 보람을 느끼며 하루하루 생활하고 있다. 결핵관리 사업의 홍보도 열심히 해서 결핵 환자의 수가 많이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또한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철저한 결핵관리 사업을

